

케이스탯 리포트 1년 특집 : '키워드'로 보는 2021년 한국사회 전망

■ 2021년 한국사회 5대 '키워드'

- _ '불안한 개인'이 살아가는 방법
※ 케이스탯 리포트 1년 주요 내용

■ 키워드별 국민의식 세부내용과 전망

_ 불안한 개인

지난 1년 내내, 어제 하루 '걱정 많았다'
전반적 삶, 4대 영역 모두 '불안하다'
불안은 '내'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 / 2021년 삶, '나빠질 것'

_ 사회적 믿음 쇠퇴

사회공동체에 매우 부정적 / 사회 건강성에 대해서도 불신
정치는 역할 못하고, 언론도 신뢰 못해
정치권, 오히려 불공정 주체로 인식

_ 각자도생

내 삶은 내가 챙기고, 개인 이익 중요
사회구조적 문제 알지만, 내가 손해 볼 수 없다
구조적 문제 용인하는 '능력주의' 확산 / 나 혼자만 편안하다

_ 편 가르기

폐쇄적이고 차별적인 한국 사회
광범위한 일상에 퍼져 있는 편 가르기, '차별'
정치적 '진영 논리', 가장 극단적 / 배제의 논리, 대부분 '혐오'로 발전

_ 재테크 열풍

각자도생의 핵심 방법, 재테크 / 주택, '주거공간'이자 '투자대상' 인식
여유자금 많으면 '주식'보다 '부동산' 투자 / 부동산, 주식, '오를 것'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1년 2월 5일(금) ~ 2월 7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리서치 K-패널
유효표본	총 1,068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0\%$ p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1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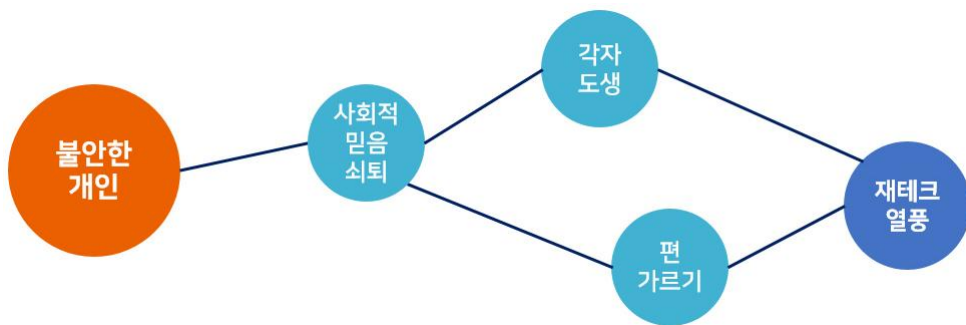
일러두기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2021년 한국사회 5대 '키워드'

'불안한 개인'이 살아가는 방법

- 2020년 3월부터 약 1년간 케이스탯 리포트가 조사·분석한 결과를 종합하고 2021년 사회 흐름을 반영한 결과, 2021년 한국사회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키워드가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케이스탯 리포트는 2020년 3월부터 한국민의 사회의식을 다양하게 측정하고 분석해 옴
 - 2021년은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해로 우리 사회의 문제들이 증폭되고, 집중 조명될 것으로 예상됨



- **불안한 개인** :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불안한 개인'으로, 우리 사회가 양산한 각종 문제들과 코로나19 사태가 중첩되면서 국민 개개인의 불안감은 고조되어 있고 2021년에도 불안감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국민들은 평소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해 '보통 이상'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
 - 또한 국민들은 국민 개개인의 영속적인 삶과 더 나은 삶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고 보장해야 할 삶의 영역인 경제, 건강, 주거, 안전 등 4대 영역 모두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

평소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한 불안 정도 : 국민전체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2020.11.08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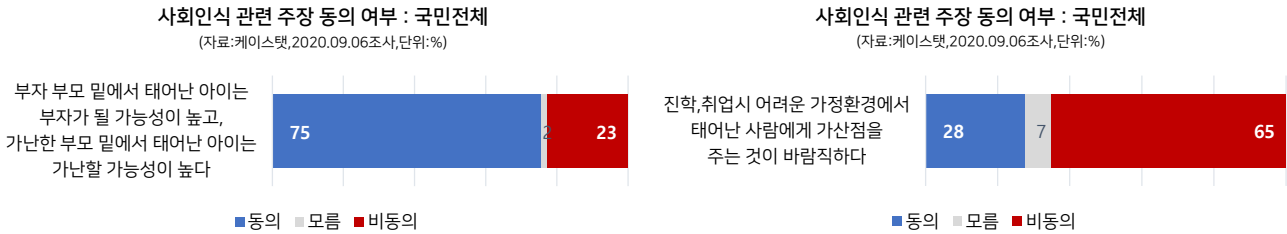


- **사회적 믿음 쇠퇴** : 국민들은 불안요인이 사회에서 초래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건강성을 잃었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에 대한 기대가 낮음
 -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계층상승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 언론은 공정하다는 믿음, 우리 사회는 공정하다는 믿음 등 각종 사회적 믿음이 급격히 쇠퇴하고, 대신 분열된 사회이자 갈등 사회라는 부정적 인식이 들어섬

계층상승 가능성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1.01.10조사,단위:%)



- **각자도생** : 사회와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믿음이 쇠퇴하면서, 국민들은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함
 - 국민들은 '내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를 위한 이익' 중에서 '내 개인의 이익'을 중시함
 - 또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어려운 사람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내가 손해 볼 수는 없다는, 이른바 '각자도생'을 선택하고 있음



- **편 가르기** : 사회와 구성원들을 향한 '사회적 믿음의 쇠퇴'는 자신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편 가르기'로 귀결되고, '내 편'이 아닌 '배제된 그들'은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됨
 -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극도로 분열되어 있고, '폐쇄적이고 차별적인 사회'에 가깝다고 생각함
 - 정치적으로는 자신과 정치적 입장이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도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함



- **재테크 열풍** : 불안한 사회에서 '믿을 건 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도전보다 안정을 추구하고, '각자도생'의 절대적 방법으로 재테크에 집중하고 있음
 - 국민 절대다수는 재테크 필요성에 동의하고, 실제로도 다수 국민이 재테크를 하고 있음
 - 재테크 대상으로는 여유자금이 적을 경우 주식을 선호하지만, 여유자금이 많을 경우 부동산을 선호함



Kstat Point

- ☑ 불안한 개인, 사회적 믿음 쇠퇴, 각자도생, 편 가르기, 재테크 열풍 등 5대 키워드는 2021년 한국사회를 이끄는 중요 키워드가 될 것으로 분석됨
- ☑ 대선을 앞둔 2021년에 정치권은 물론 언론 등에서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쏟아낼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정치권은 이러한 5대 키워드에 대한 적절한 대응 여부에 따라 민심 획득이 좌우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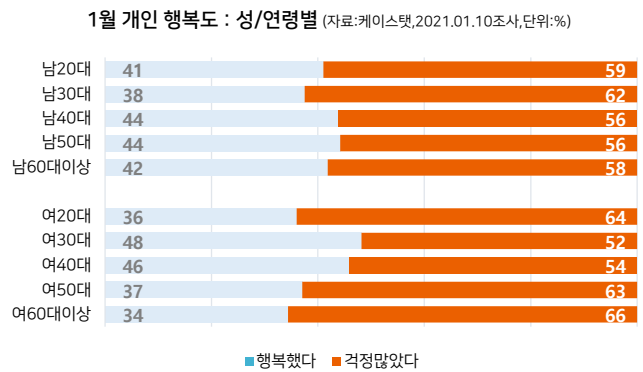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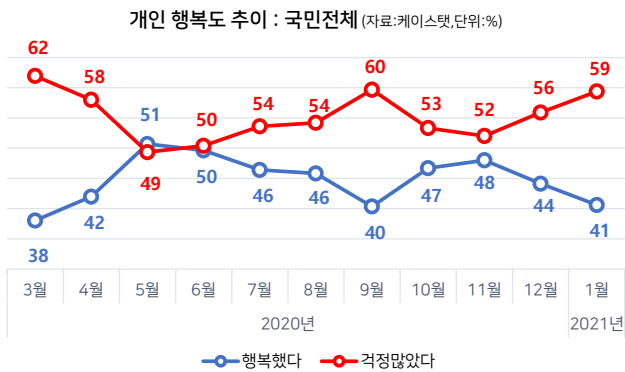
※ 케이스탯 리포트 1년 주요 내용

호수	발간일	주 제	주요 내용	
01	2020년 3월 12일	'국민 갈등 의식' 심층 분석	□한국사회 갈등 정도 평가 □정치적 입장 차이에 대한 생각	□정치적 대화 현황 □미디어 공정성 평가
02	2020년 3월 26일	'행복' 관련 국민의식 심층 분석	□'행복'에 대한 국민의식 현황 □'행복' 관련 국민감정 이해	□'행복'에 대한 국민들 생각
03	2020년 4월 02일	코로나19 국민의식 및 삶의 변화 양상 분석	□코로나19 사태 정부 대응 평가 □국민수칙 준수 여부 평가 □경제적 삶 변화상	□일상적 삶 변화상 □코로나19 종식 전망
04	2020년 4월 23일	[지구의 날] 특집 환경의식 집중 분석	□환경 관련 국민의식 현황 □일회용품 줄이기 행동 의향	□포장 폐기물 줄이기 해법 평가
05	2020년 5월 14일	코로나19 위험인식과 경제활동 분석	□코로나19 위험 인식 현황 □코로나19의 경제 위협 정도 평가 □코로나19 이후 소비지출 변화	□코로나19 종식단계시 소비지출 의향 □경제정상화 방향성
06	2020년 5월 28일	흡연과 건강 관련 국민의식 분석	□흡연 관련 국민의식 □건강 관련 국민의식	□건강과 빈부 격차
07	2020년 6월 11일	차별과 배제 관련 국민의식 분석	□한국 사회 포용성 평가 □차별 또는 배제 관련 국민의식	□대상별 포용 정도 평가
08	2020년 6월 25일	국가호감도 및 미중 갈등 관련 국민 의식 분석	□국가국제기구 호감도와 세계 미칠 영향력 평가	□세계 최고 경제강국 관련 국민 의식 □미중 갈등 전망 및 대한민국의 태도
09	2020년 7월 23일	'결혼과 출산' 국민 가치관 분석	□'결혼과 출산' 한국인 가치관 유형 □'결혼과 출산' 가치관 좌표 현황	□결혼과 가족에 대한 세부 응답 현황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부 응답 현황
10	2020년 8월 13일	부동산 관련 국민 의식 심층 분석	□주택에 대한 국민 의식 □부동산 가격에 대한 인식	□부동산 투자에 대한 국민 의식
11	2020년 8월 27일	경제활동과 재테크 관련 국민 의식 분석	□경제활동 나이와 위협 요인 □은퇴(또는 노후) 준비에 대한 의식	□재테크 관련 국민 의식
12	2020년 9월 10일	'공정'에 대한 국민 의식 심층 분석	□한국사회 공정성 평가 □'공정'에 대한 국민 생각 종합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
13	2020년 9월 24일	민주주의와 개인자유 국민 의식 분석	□우리나라 민주주의 평가 □코로나 시대 '개인자유' 가치관 분석	□'개인자유' 관련 세부 응답 현황
14	2020년 9월 24일	코로나 시대 '위협'과 '위안' 에 대한 국민 의식 분석	□코로나 시대 '위협' 인식 □코로나19 지속 시, 사회 전망	□코로나 시대 '인간관계'와 '위안 주는 것'
15	2020년 10월 28일	사회,가족,개인에 대한 국민 의식 분석	□사회,가족,개인 관련 조사 주요 내용	□사회-개인 가치지향별 유형화 결과
16	2020년 11월 12일	국민 '불안 의식' 진단 및 분석	□전반적 삶 및 영역별 불안 정도 □불안을 느끼는 이유	□불안에 대응하는 태도
17	2020년 11월 26일	'불안사회' 해소 관련 국민 의식 분석	□불안사회에 대한 평가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인식	□정부지자체 불안요인 대응 방향성
18	2020년 12월 10일	연말특집 ① '국민 기억' 으로 보는 2020년	□2020년 분기별 가장 기억나는 사건 □2020년 전체 가장 기억나는 사건	□2020년 총괄 평가와 2021년 전망
19	2020년 12월 23일	연말특집 ② '만약에...' 가정으로 엮본 국민생각	□만약에 태어날 때 선택할 수 있다면? □만약에 인생 중에 선택할 수 있다면?	□만약에 무한한 능력이 있다면?
20	2021년 1월 14일	신년특집 ① 국민 스스로 만든 [2021년 토정비결]	□띠별로 보는 [2021년 토정비결]	□조사결과 세부 분석
21	2021년 1월 28일	신년특집 ②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바라는 희망사항	□2021년, 분야별 이뤄지기 바라는 것 □2021년 전체, 이뤄지기 바라는 것	□작년과 비교, 2021년 대한민국 전망

키워드별 국민의식 세부내용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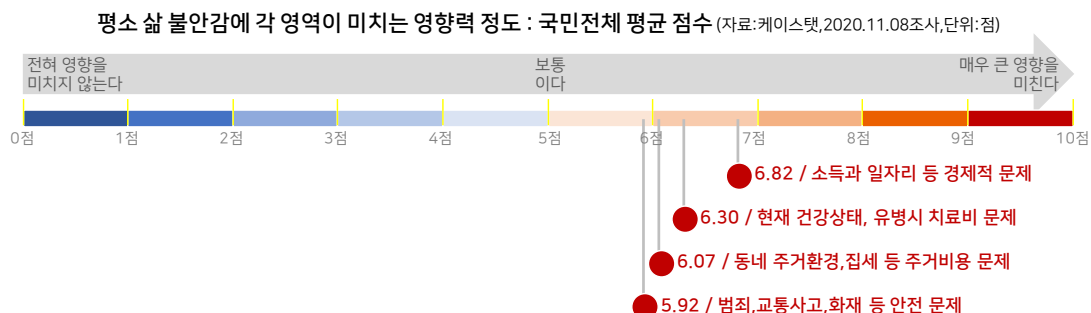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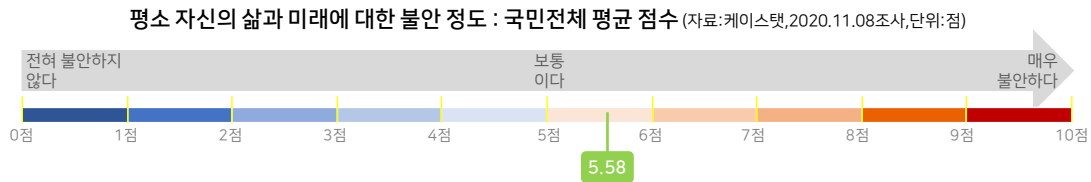
□ 불안한 개인 : 지난 1년 내내, '어제 하루 걱정 많았다'

- 케이스탯 리서치는 2020년 3월부터 개인 행복도를 조사해 왔는데, 조사 기간 내내 국민들은 걱정이 많은 나날을 보내온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5월에 '행복했다'는 응답이 51%로 근소한 우위를 보이고, 6월에 '행복했다'는 응답이 50%로 동등하게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조사 기간 내내 '걱정 많았다'는 응답이 우세함



□ 불안한 개인 : 전반적 삶, 4대 영역 모두 '불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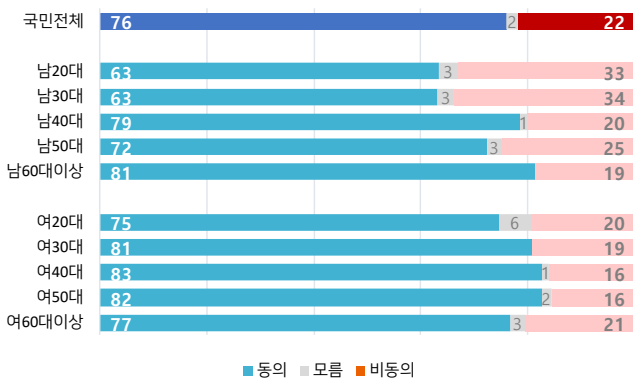
- 전반적 삶에 대한 국민 전체 평점은 5.58로 '보통 이상'의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삶의 4대 영역(경제, 건강,주거,안전) 모두가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특히 '소득과 일자리 등 경제적 문제'의 영향력이 높는데, 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득감소 및 실업, 고용불안정성 등 때문으로 분석됨
- 코로나19 종식이 2021년 말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들 경제적 문제는 2021년 내내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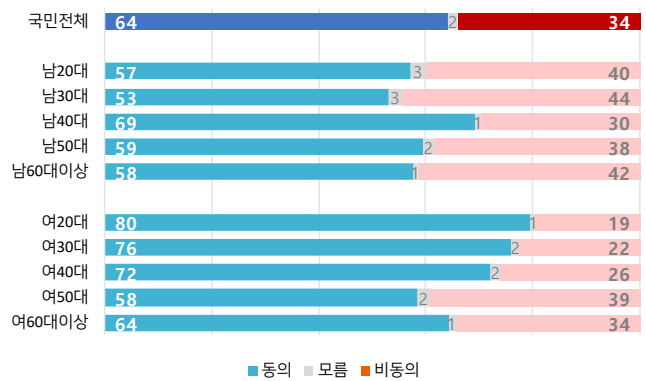
□ 불안한 개인 : 불안은 '내'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

- 우리 국민들은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에 대한 각각의 질문에 모두 높은 수준의 동의를 표명함
 - “선생님 개인, 또는 주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다음 각각은 그 이유에 대한 주장들입니다. 동의하세요, 동의하지 않으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임
- ‘나 혼자 노력하고 준비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들이 아니라서’에 76%가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연하고 잘 모르겠어서’에 대해서도 64%의 국민이 동의함

"나 혼자 노력, 해결될 문제 아니라서" 주장 동의 여부 : 국민전체,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 2020.11.08조사, 단위:%)



"구체적으로 무엇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 주장 동의 여부 : 국민전체,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 2020.11.08조사, 단위:%)



□ 불안한 개인 : 2021년 삶, '나빠질 것'

- 국민들은 2021년 삶에 대한 전망에 있어 좋아지기 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다소 우세함
 - 2020년과 비슷할 것에 다소 못 미치는 -0.37점을 기록, '나빠질 것'으로 생각함

"2021년 삶 전망" : 국민전체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 2020.12.06조사,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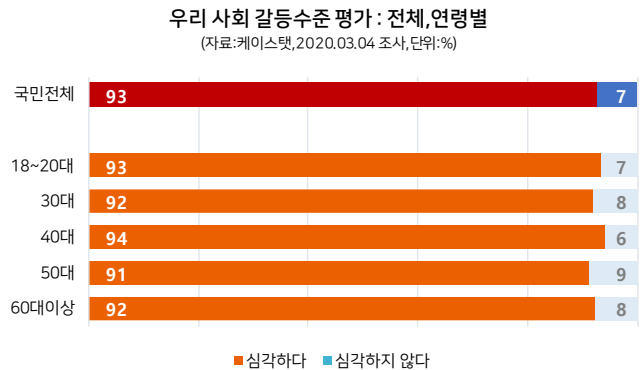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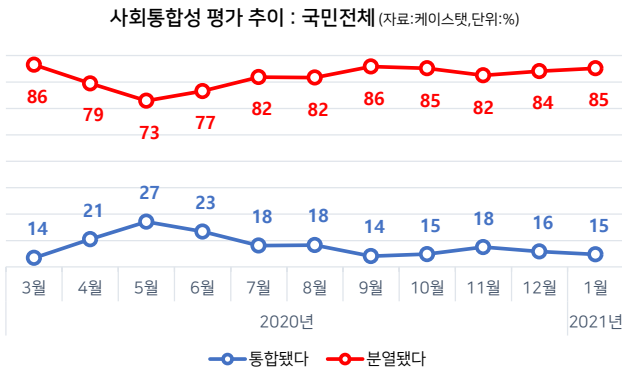


Kstat Point

- ☑ 독일의 대표적인 사회학자 에른스트 디터 란터만은 현대사회를 '불안사회'로 특징짓고 그 이유에 대해 개인화, 예측 불가능성, 자기 가치관의 위기 등을 꼽음(『불안사회』, 2019년).
 - : 특히 주목되는 지점은 '개인화'로, 개인주의 발전은 자유의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공동체 및 전통과의 단절에 따른 사회구성원에 대한 신뢰하락을 초래하게 됨
- ☑ 현재 우리 국민들 역시 불안이 '내' 외부, 즉 사회와 구성원들에게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강함
 - : 그렇다고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겠기에 불안감이 또 강화되는 초조한 상황에 처해 있음
- ☑ 2021년에도 코로나19가 유지되고, 백신 접종은 불확실성이 존재해, 불안감이 진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 여기에 4.7 보궐선거와 대선국면 본격화에 따른 정치적 공방이 격렬해지면서 불안감은 더욱 자극될 가능성이 높음
 - : 역으로 불안감을 다독이고, 구체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정치인이 국민적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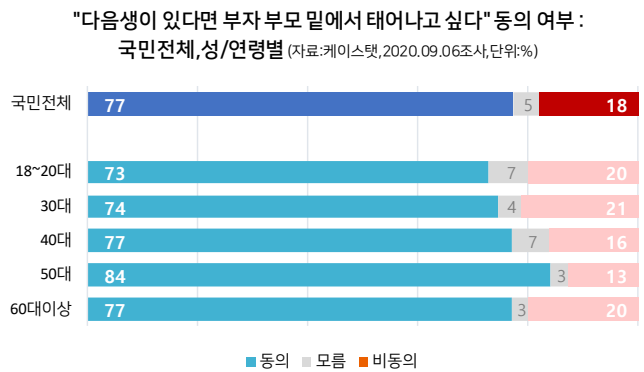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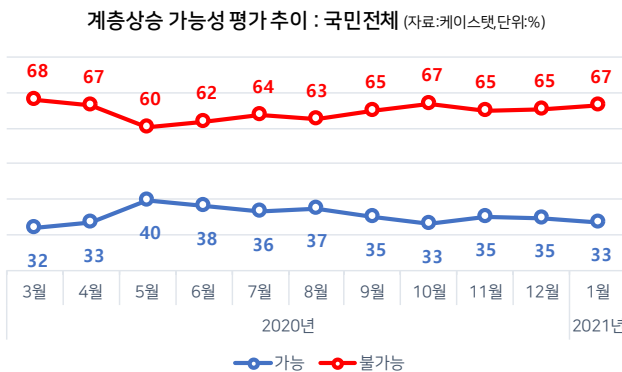
□ 사회적 믿음 쇠퇴 : 사회공동체에 매우 부정적

-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분열됐다'고 생각하고, 갈등 수준도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등 사회공동체 자체에 대해 매우 부정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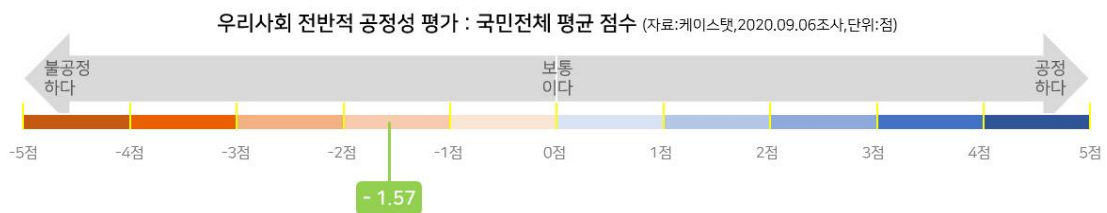


□ 사회적 믿음 쇠퇴 : 사회 건강성에 대해서도 불신

- 국민들은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상승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른바 '부모의 종착역이 자식의 출발역'이 되는 구조적 불평등이 굳건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음
-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부자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다'는 주장에 77%가 동의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의 반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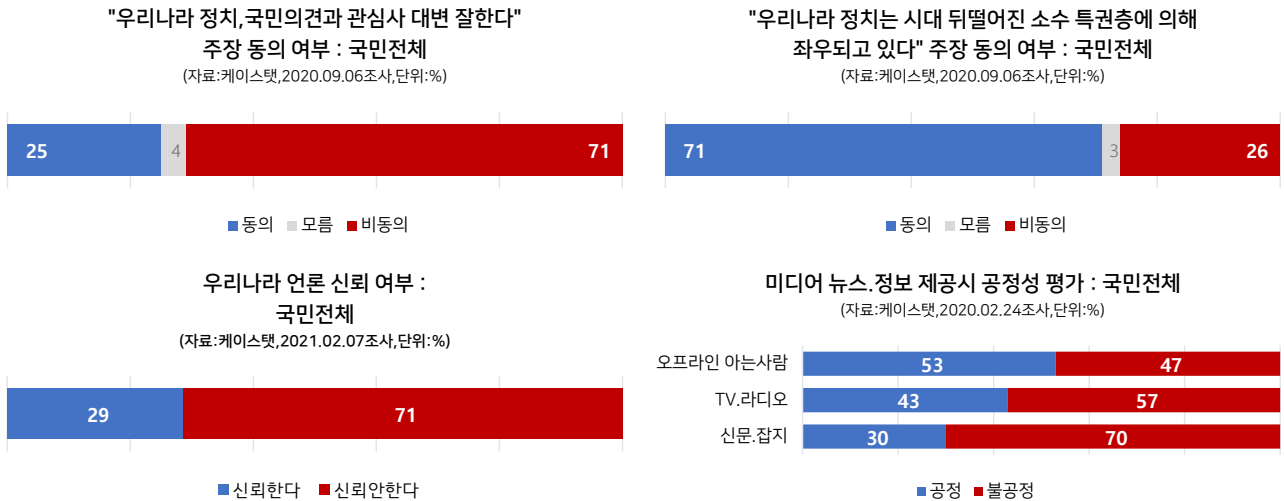


- 사회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건강성을 불신하고 있음
- 우리 사회 전반적 공정성 평가에 대한 국민전체 평균 점수는 -1.57점으로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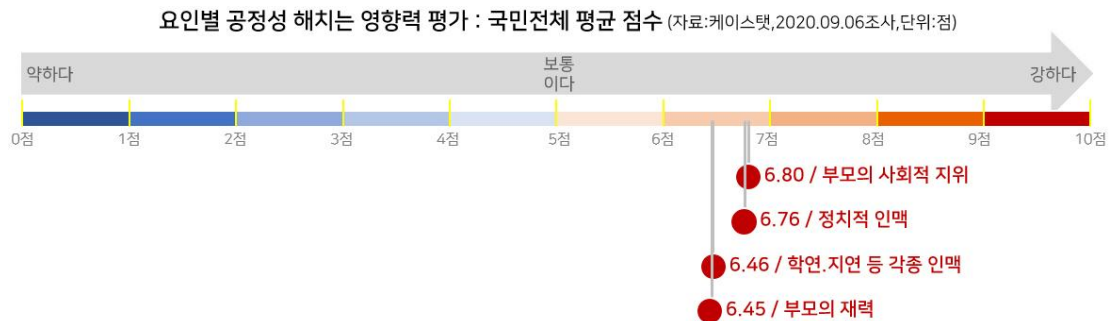
□ 사회적 믿음 쇠퇴 : 정치는 역할 못하고, 언론도 신뢰 못해

- 분열된 갈등 사회, 계층상승 가능성이 차단된 불공정 사회를 개선해야 하는 것은 정치권의 역할임
- 하지만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은 매우 저조하고, 공론의 장인 언론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못함



□ 사회적 믿음 쇠퇴 : 정치권, 오히려 불공정 주체로 인식

- 정치권은 사회를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공정성을 해치는 주된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음
- 정치권을 비롯해 이른바 사회지도층이 우리 사회 공정성을 앞장 서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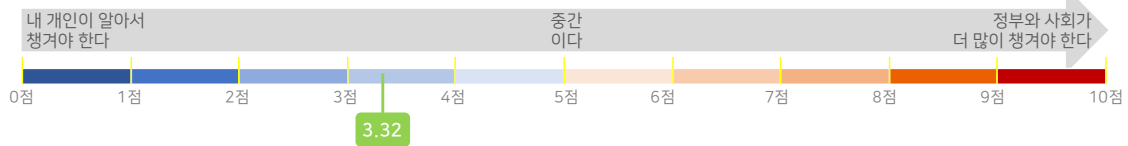
Kstat Point

- ☑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국민들인데 오히려 국가와 사회가 국민불안을 초래하고 있음
- ☑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유대감, 그리고 책임감의 토대인 사회적 믿음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는 점임
- ☑ 또한 사회 건강성을 유지해야 하는 정치권을 비롯해 언론, 사회지도층 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함은 물론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 국민들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야 하는 이유 자체를 찾기 어려운 상황임
- ☑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이른바 '부모 찬스'와 같은 불공정 문제가 불거질 경우 국민적 비판이 쇄도할 것으로 보임 : 역으로 국민의 편에 서 있다는 믿음을 주고, 사회적 가치를 재정립하는데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중요할 것임

□ 각자도생 : 내 삶은 내가 챙기고, 개인 이익이 중요

- 국민들은 불안 유발 요인이 '내' 외부, 즉 사회와 구성원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면서도, 사회를 신뢰하지 못함에 따라 결국 '내 개인이 알아서 챙겨야 한다'는 태도를 갖고 있음
- 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국민들은 '내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를 위한 이익' 중 선택해야 한다면 '내 개인의 이익'을 선택함

"내 개인의 삶은 결국..." : 국민전체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2020.11.08조사,단위:점)



"내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를 위한 이익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 국민전체 평균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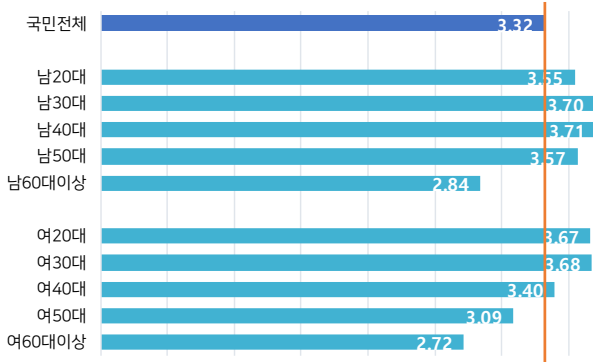
(자료:케이스탯,2020.11.08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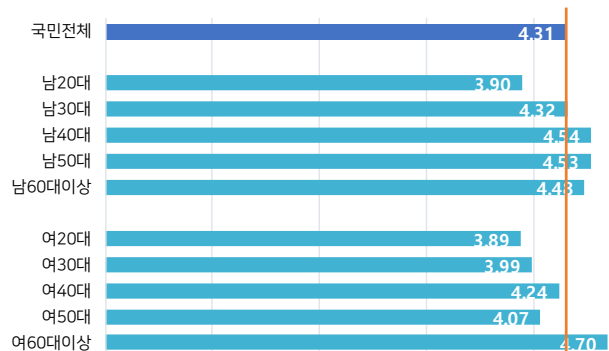
- 내 개인의 삶은 결국 내가 챙겨야 한다는 생각은 남자 60대이상과 여자 5060세대가 특히 강함
- 이에 비해 '내 개인 이익 선택'은 남자 20대와 여자 2030세대 등 젊은 층에서 특히 강함

"내 개인의 삶은 결국..." : 국민전체,성/연령별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2020.11.08조사,단위:점)



"내 개인 이익과 사회전체 이익 중..." : 국민전체,성/연령별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2020.11.08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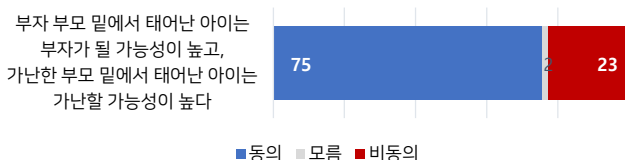


□ 각자도생 : 사회구조적 문제 알지만, 내가 손해 볼 수 없다

-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어려운 사람들의 상황을 잘 알지만, 내가 손해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함

사회인식 관련 주장 동의 여부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0.09.06조사,단위:%)



사회인식 관련 주장 동의 여부 : 국민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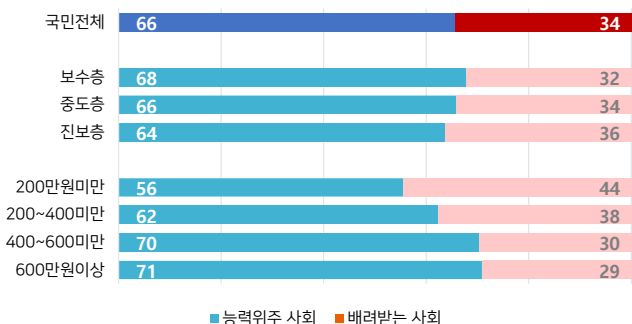
(자료:케이스탯,2020.09.0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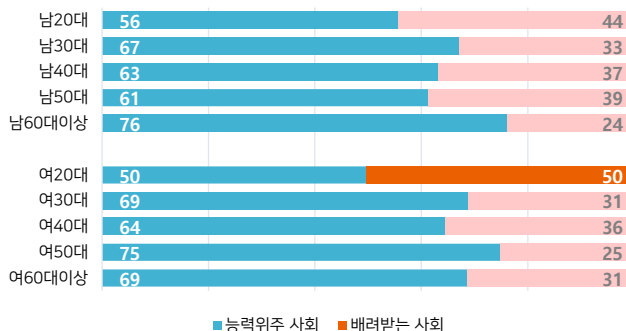
□ 각자도생 : 사회구조적 문제 용인하는 '능력주의' 확산

- 각자도생은 또한 필연적으로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하기보다 이를 용인하는 수동적 태도로 귀결됨
- “만약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출생을 앞두고 있는데 부잣집에 태어날지, 가난한 집에 태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회규칙을 만들수 있다면?”이라는 질문에 ‘집안 환경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능력위주사회를 만들겠다’는 의견이 66%로 높게 나타남
 - ‘집안이 어려운 사람은 능력이 부족해도 배려를 받아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견은 34%에 그침
 - 모든 계층에서 ‘능력위주사회’라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유일하게 여자 20대만 50% vs 50%로 팽팽함
- 주목되는 점은 이념성향별인데, 구조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진보층에서도 ‘능력위주 사회’가 우세함

(출생앞두고) 능력위주 사회 vs 배려받는 사회 : 국민전체, 이념별, 소득별 (자료:케이스탯, 2020.12.07조사, 단위:%)



(출생앞두고) 능력위주 사회 vs 배려받는 사회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 2020.12.07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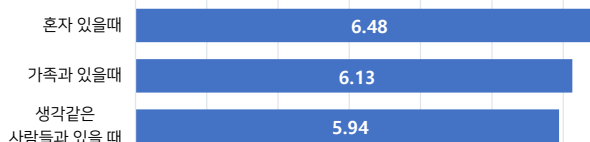
□ 각자도생 : 나와 가족 행복 중요하고, 혼자가 편안하다

- 각자도생이 지향하는 것은 내 개인의 행복과 가족의 행복으로 조사됨
- 또한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경향이 강해짐

"나는 평소 살면서 이것을 소중히 생각한다" 동의도 평점 (10점 만점)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 2020.10.11조사, 단위:점)



"나는 이 시간이 편안하다" 동의도 평점 (10점 만점)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 2020.10.11조사, 단위:점)



Kstat Point

- ☑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그 원인으로 '빈부의 대물림'이 지적됨
 - : 이에, 선진국 등에서는 빈부(가정환경)와 무관하게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를 의무적으로 배려하는 정책(대학 특례 입학 등)을 통해 현실을 교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기회균등 및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이 실행되고 있음
- ☑ 하지만 사회적 믿음이 쇠퇴하고 각자도생이 부각되면서 사회구조적 문제를 용인하는 '능력주의' 선호로 이행 중임
- ☑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여론에 기대어 능력주의 사회를 강화하는 공약을 제시할 경우,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이른바 '계급사회'로 이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편 가르기 : 폐쇄적이고 차별적인 한국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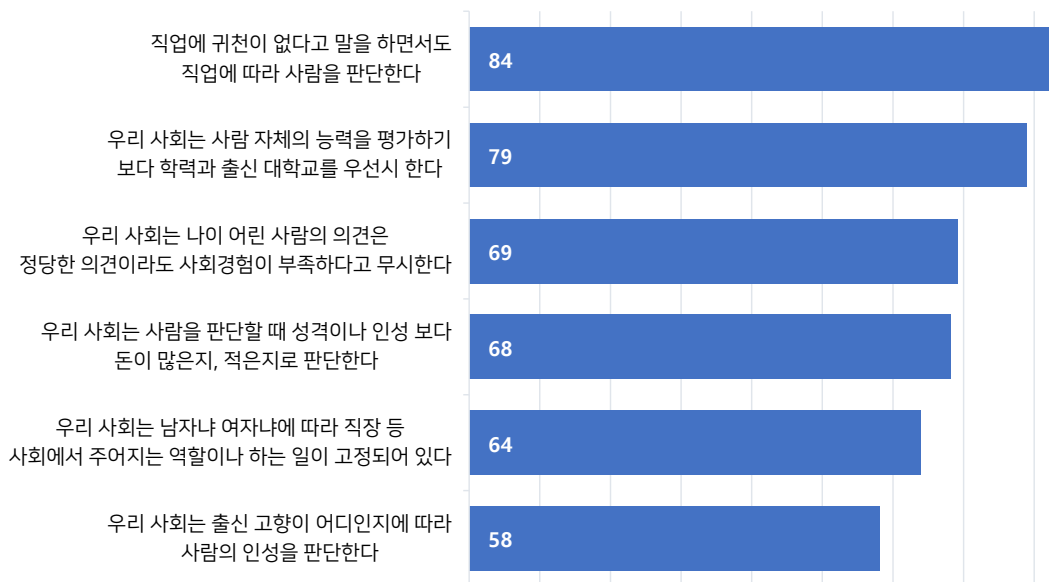
- 우리 사회 포용성에 대한 국민 생각은 '보통 수준'에 미치는 못하는 4.72점을 기록, '폐쇄적이고 차별적인 사회'에 가까움
- 사회와 구성원들을 향한 '사회적 믿음의 쇠퇴'는 자신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 하고만 어울리는 '편 가르기'로 귀결되고, '내 편(우리)'이 아닌 '배제된 그들'은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됨



□ 편 가르기 : 광범위한 일상에 퍼져 있는 편 가르기, '차별'

- 각자도생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개인으로 남기보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우리'로서 어울리고, 그 외는 '그들'로 배제하는 '편 가르기'가 일상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차별'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동의도를 살펴보면 '직업', '학벌', '나이', '돈', '성', '고향' 등에 따라 차별이 이뤄진다는 생각하고 있음
- 이는 우리 사회에 '차별'이 일상적이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반증이자, 개인으로 고립되지 않으려는 치열한 '내 편 찾기' 현상으로 보임
-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학교폭력 역시 이러한 '편 가르기'에 따른 배제와 차별의 한 형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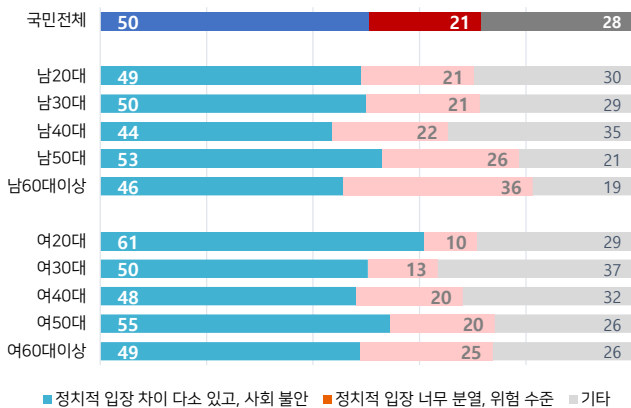
'차별' 관련 주장 동의도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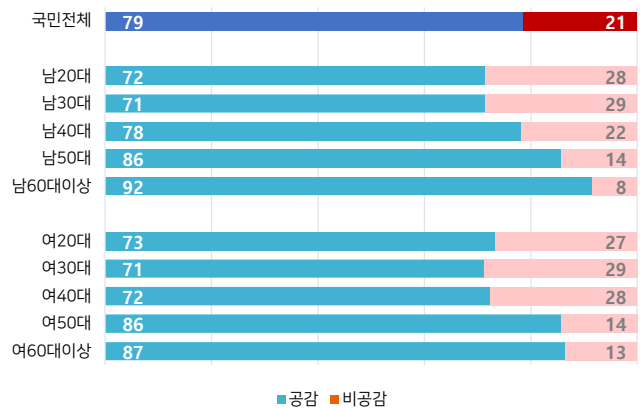
□ 편 가르기 : 정치적 '진영 논리', 가장 극단적

- 편 가르기가 가장 극단적으로 이뤄지는 영역은 정치로, 국민들은 정치적 입장 차이가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
 - 국민 중 50%는 '정치적 입장 차이가 다소 있고, 사회를 불안하게 만든다'고 생각함
 - 21%의 국민은 '정치적 입장이 너무 분열되어 있고, 사회에 위험한 수준'이라는 의견을 피력함
- 보수 vs 진보 간의 이른바 '진영 논리'와 '진영 대립'이 극단적으로 대치됨에 따라 국민들은 '나와 정치적 입장이 비슷한 사람들과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고 생각함

'정치적 입장차이에 대한 인식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 2020.03.04조사, 단위:점)



"나와 정치적 입장 비슷한 사람과 있을 때 편안함 느낀다"
공감도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 2020.03.04조사,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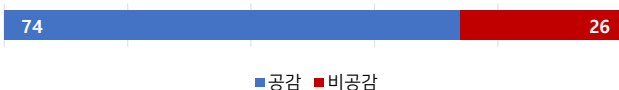
■ 정치적 입장 차이 다소 있고, 사회 불안 ■ 정치적 입장 너무 분열, 위험 수준 ■ 기타

■ 공감 ■ 비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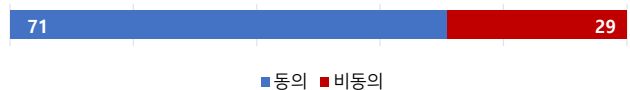
□ 편 가르기 : 배제의 논리, 대부분 '혐오'로 발전

- 편을 가르고 '그들'을 배제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동원됨
 -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도 생각을 바꾸지 않을 사람들'이라고 단정함
 - 아이들 출입을 금지하는 '노 키즈 존'은 시끄럽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배제를 정당화하고 있음

"정치적 입장 다른 사람들, 객관적 근거 제시해도 생각 안바꿀 것" 주장 공감도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 2020.03.04조사, 단위:점)



카페, 음식점 등 '노 키즈 존' 운영 동의 여부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 2020.06.07조사, 단위:%)



■ 공감 ■ 비공감

■ 동의 ■ 비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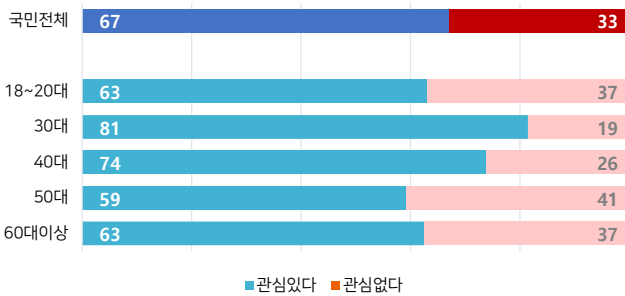
Kstat Point

- ☑ 사회공동체와 구성원에 대한 믿음이 쇠퇴함에 따라 개인적 선호와 이익에 근거한 '편 가르기'가 광범위하게 진행됨
 - : 이러한 '편 가르기'는 '내 편'인 '우리'가 아닌 '그들'을 배제하게 되고, 배제의 이유들은 대부분 '혐오'로 발전함
 - : 앞서의 '노키즈존'은 일부 어린이의 소란과 일부 부모들의 그릇된 인식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도 이를 모든 어린이들의 문제로 확대한 것으로, 어린이와 부모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 유린 측면이 강함(과거 혹은 출입 금지와 같음)
- ☑ 특히 2021년은 4.7 재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 국면을 맞아 정치적 '진영 논리'가 극단적으로 진행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분출할 우려가 큼
 - : 대선주자들은 대선이라는 거대한 공론의 장을 사회적 연대의식과 포용성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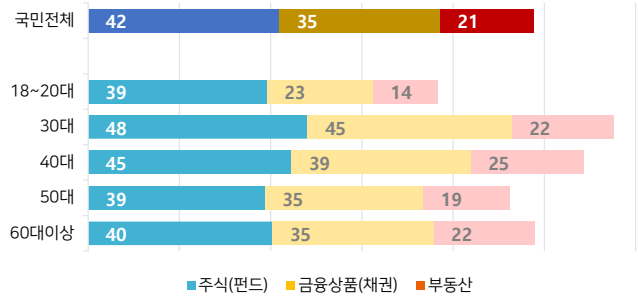
□ 재테크 열풍 : 각자도생의 핵심 방법, 재테크

- 불안한 사회에서 '믿을 건 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도전보다 안정을 추구하고, '각자도생'의 절대적 방법으로 재테크에 집중하고 있음
 - 또한 노동소득(급여)에만 의존해서는 자녀교육, 노후준비 등을 안정적으로 이루기 힘들다는 현실적 문제가 크게 작용한 것도 자본소득(재테크)에 대한 관심 증가의 이유임
- 재테크에 '관심있다'는 국민이 67%에 달하고, 현재 하고 있는 재테크로는 주식(펀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재테크 관심 여부 : 국민전체, 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0.08.09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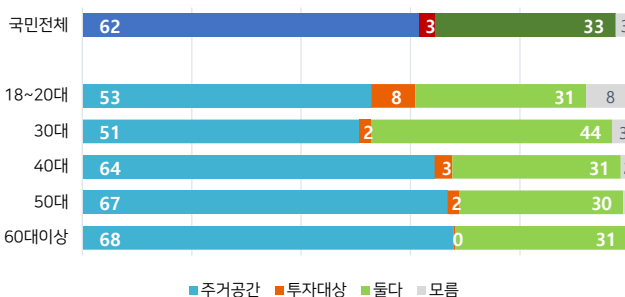
현재 하고 있는 재테크(복수응답) : 국민전체, 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0.08.09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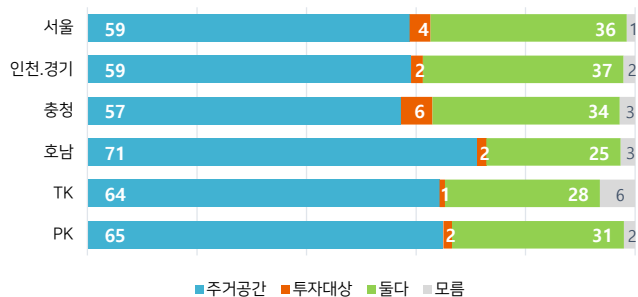
□ 재테크 열풍 : 주택, '주거공간'이자 '투자대상' 인식 등장

- 재테크 열풍 과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주택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대두된 점임
 - 주택에 대한 전통적 인식은 주거공간이고, 특별한 몇몇 사람들이 투기대상으로 주택을 이용한다는 것이었음
 - 하지만 조사결과 주택에 대해 '주거공간이자 투자대상' 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33%에 달함
- 즉, 작년부터 급등한 주택가격은 '투기'의 결과도 아니고, '실 수요자 증가에 못 미치는 공급부족' 때문도 아니라 국민적 인식 변화가 가장 주된 요인으로 보임
 - 주택을 주거공간이자 재테크 대상으로 인식함에 따라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됨
 - 이 수요는 단순한 '실 수요자'가 아닌 주거와 투자의 대상으로 주택(부동산)을 바라보는 젊은층의 인식 전환의 결과로 판단됨

주택에 대한 인식 : 국민전체, 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0.08.09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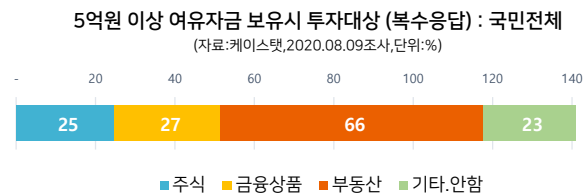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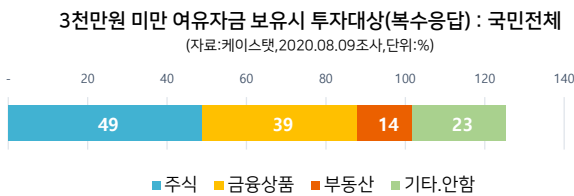


주택에 대한 인식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0.08.09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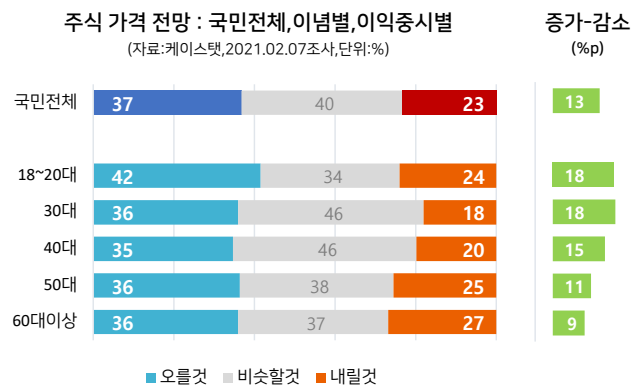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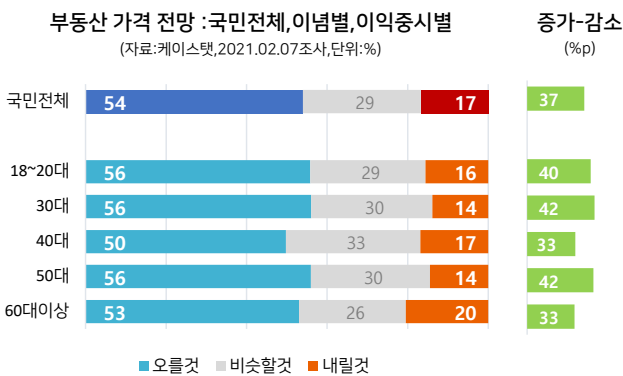
□ 재테크 열풍 : 여유자금 많으면 '주식'보다 '부동산' 투자

- 주택(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장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은 여유자금 보유에 따른 투자 대상 조사결과임
- 여유자금이 3천만원 미만일 경우 주식을 가장 선호하지만, 여유자금이 5억원 이상일 경우 부동산으로 급격히 이동함
 - 즉, 현재 부동산에 투자하지 못하는 것은 여유자금이 없어서일 뿐인 것으로 이는 '주택 실 수요자'가 엄청난 규모로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임



□ 재테크 열풍 : 부동산, 주식, 모두 '지금보다 오를 것'

- 부동산이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54%에 달하고, 주식이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37%를 기록함
- '오를 것'에서 '내릴 것'을 뺀 차이를 살펴보면 부동산은 37%p이고, 주식은 13%p로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임



Kstat Point

- ☑ 정부는 지난 2월 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전국에 83만6천호(서울 32만호, 수도권 61만6천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함
 - : 하지만 다수 국민들은 정부의 목표와 달리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함
- ☑ 실제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저금리로 시중에는 유동성이 풍부하고, 재테크 열풍과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바라 보는 새로운 인식 대두로 하락보다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 : 이에 따라 부동산 공급이 늘수록 투자대상이 늘어나는 상황이 연출되고,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두됨
- ☑ 부동산 정책 추진 시 이러한 인식 변화에 주목하고, 공급 확대만이 아니라 재테크 열풍이 자칫 가계부실로 이어지는 문제를 차단하는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임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가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23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23호는

3월 11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